

2017. 07.
Vol.35

NYPi *Blue*note

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



청소년활동 참여 실태¹⁾

최창욱 선임연구위원 ccwook@nypi.re.kr

문호영 부연구위원 hymoon@nypi.re.kr
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, 청소년활동 만족도, 청소년활동 장애요인,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,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'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'를 실시함.
- 조사대상** ▶ 전국 초등학교 4~6학년, 중학교 1~3학년, 고등학교 1~3학년에 재학 중인 8,62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.
- 조사방법** ▶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
- 조사기간** ▶ 2016년 5월 ~ 7월

1)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고유과제 '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'를 발췌·요약한 것임.

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

■ 청소년활동 영역 중 '건강·보건활동'의 참여율(93.6%)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- 이어서 '문화예술활동'(85.2%), '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'(72.5%), '봉사활동'(62.9%), '과학정보활동'(61.2%), '모험개척활동'(57.8%), '자기(인성)계발활동'(50.8%), '환경보존활동'(48.8%), '교류활동'(33.9%)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임.
-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, 전반적으로 '건강·보건활동'과 '문화예술활동'의 참여율은 높은 반면, '교류활동'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. 또한 '과학정보활동', '교류활동', '모험개척활동', '환경보존활동', '자기(인성)계발활동'의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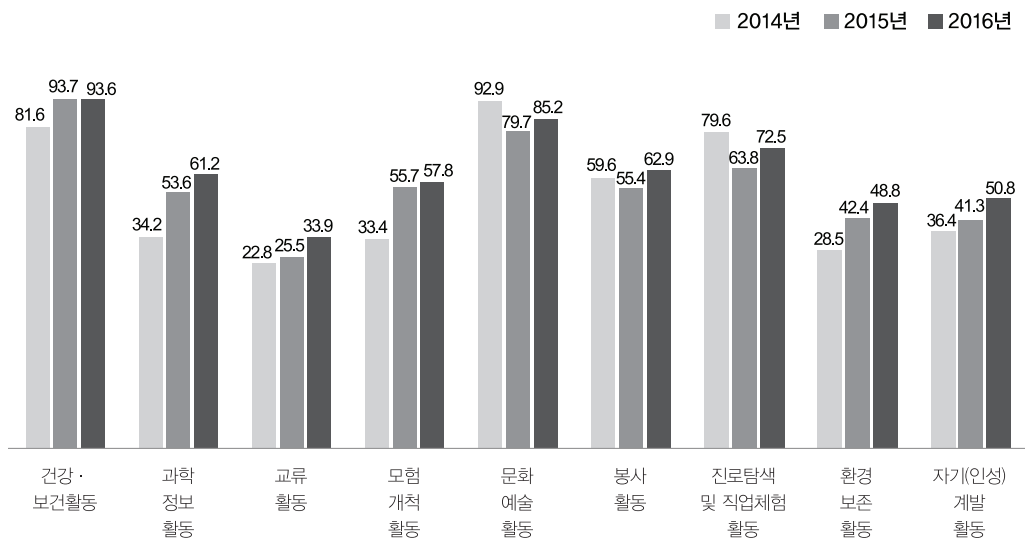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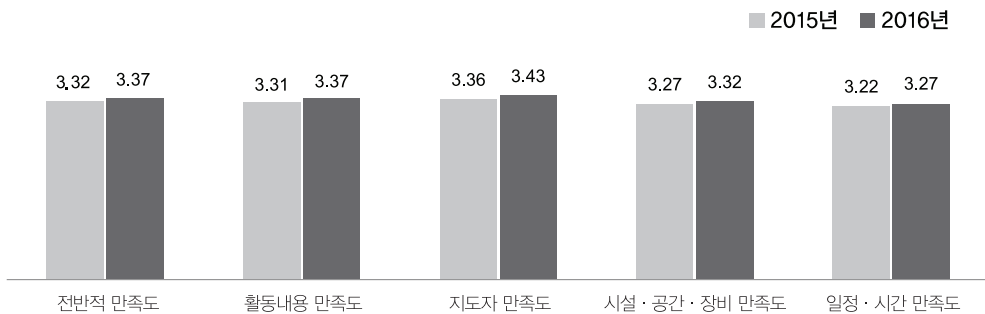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(연도별 추이)

2 청소년활동 만족도

■ 청소년활동에 대한 '전반적인 만족도'는 평균 3.37로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.

- '지도자 만족도'는 평균 3.43, '활동내용 만족도'는 평균 3.37, '시설·공간·장비 만족도'는 평균 3.32, '일정·시간 만족도'는 평균 3.27로 조사되었으며, 2015년도와 비슷한 수준임.



* 주: 전혀 그렇지 않다(1점), 그렇지 않은 편이다(2점), 보통이다(3점), 그런 편이다(4점), 매우 그렇다(5점)

그림 2 청소년활동 만족도(연도별 추이)

3 청소년활동 참여형태

■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'학교에서 단체로 참여'했다는 응답이 46.0%로 가장 많았음.

- 다음으로 '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'가 17.5%, '개인적으로 참여'가 12.3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2015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(51.0%)이 '학교에서 단체로 참여'하고, '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'한 경우도 21.4%로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72.4%로 매우 높게 나타남. 2016년도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참여한 경험의 8.9%p 감소하는 대신 '개인적으로 참여'(4.4%p)하거나 '교내-교외연계활동으로 참여'(1.5%p), '가족과 함께 참여'(1.2%p) 등의 비율이 높아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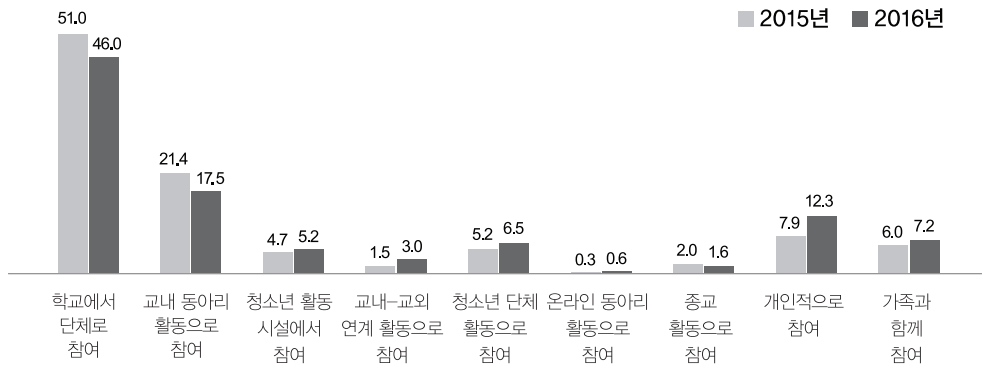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청소년활동 참여형태(연도별 추이)

4 청소년활동 참여경로

■ 청소년활동 참여경로는 '학교 선생님의 권유로' 참여했다는 답변이 38.6%로 가장 많았음.

— 다음으로 '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'(20.6%), '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'(14.0%)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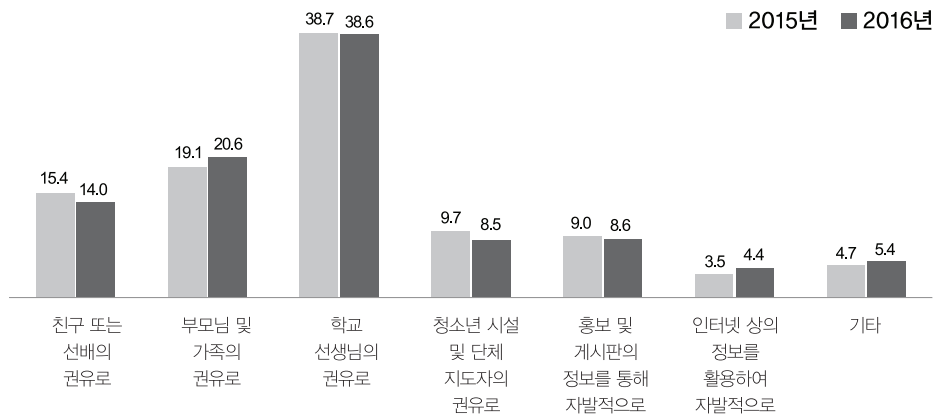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청소년활동 참여경로(연도별 추이)

5 청소년활동 장애요인

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은 ‘참여할 시간이 없어서’(30.5%)로 확인됨.

— 이어서 ‘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’(19.0%), ‘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’(14.2%), ‘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’(13.1%) 등의 순으로 조사됨. 2015년도 조사도 유사한 순위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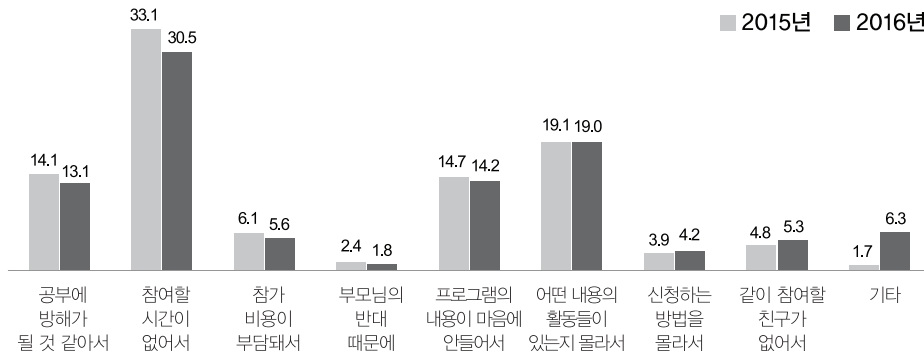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청소년활동 장애요인(연도별 추이)

6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

■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‘학교 수업시간 중’(43.7%)으로 조사됨.

— 다음으로 ‘방학기간’(23.7%), ‘주말’(22.8%), ‘방과 후’(7.8%) 등의 순으로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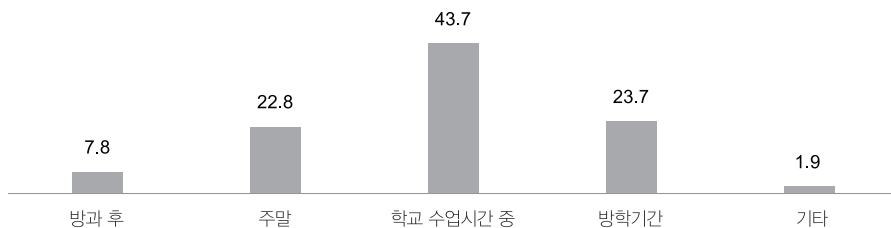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(2016년도)

7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

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 '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'(25.7%), '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'(24.9%)는 응답이 많았음.

- 다음으로 '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'(13.9%), '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'(12.6%), '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'(10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2015년도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 시간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을 강조하는 등 전반적으로 2016년도와 유사한 순위를 보임. 다만, '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'(3.4%p), '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'(2.8%p) 등의 항목은 전년도 대비 응답률이 소폭 상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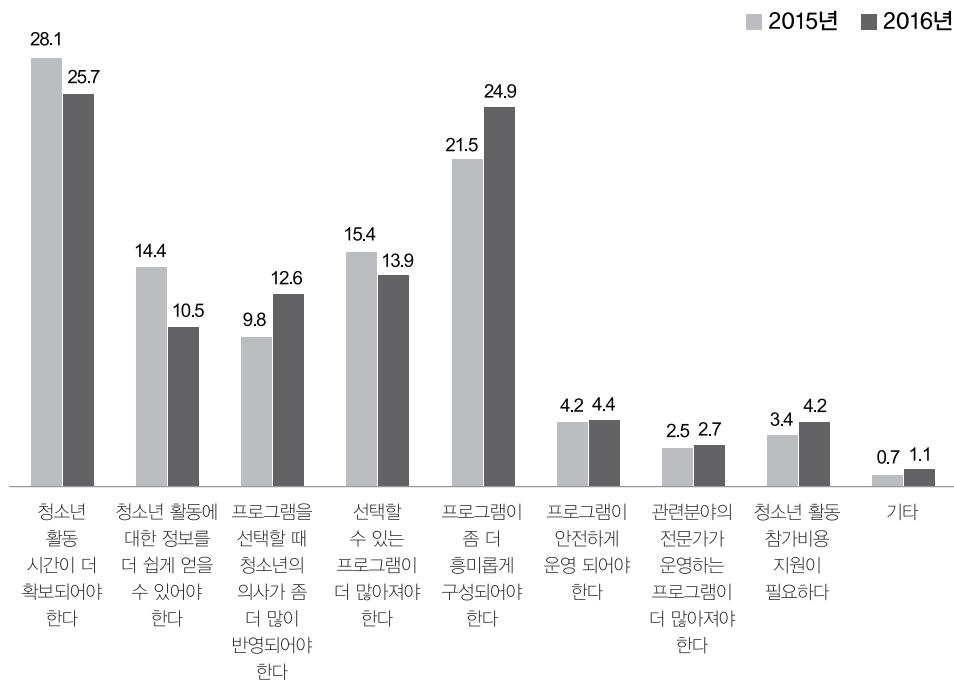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(연도별 추이)

8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

■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은 ‘문화예술활동’(22.5%), ‘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’(21.5%)으로 조사됨.

— 이어서 ‘모험개척활동’(17.0%), ‘과학정보활동’(11.1%), ‘건강·보건활동’(8.2%), ‘청소년 참여활동’(6.1%), ‘봉사활동’(5.4%), ‘자기(인성)개발활동’(3.5%), ‘교류활동’(3.0%), ‘환경보존활동’(1.8%)의 순으로 확인됨.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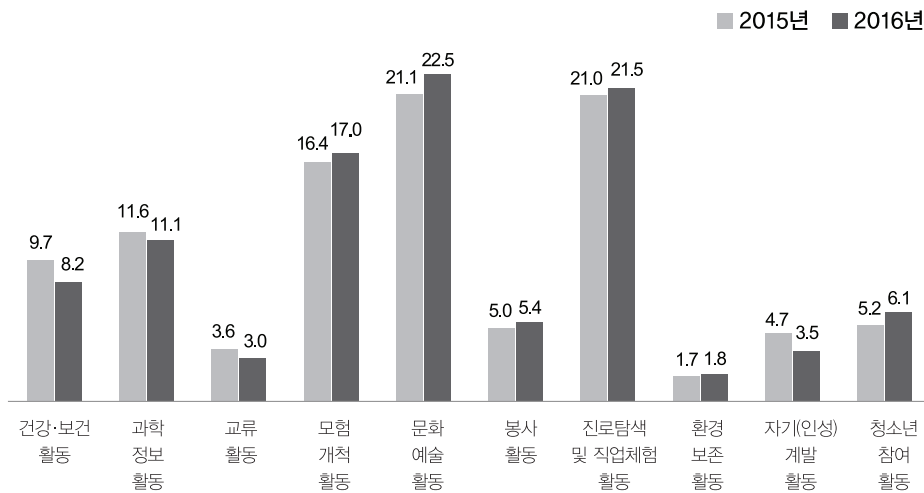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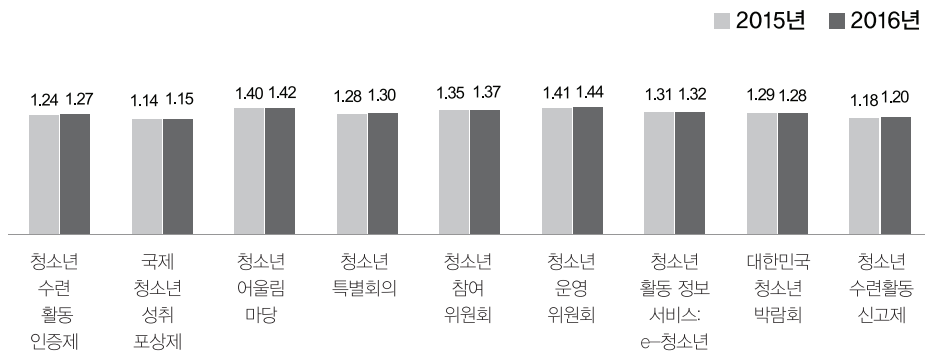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-1순위(연도별 추이)

9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

■ 9가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.15~1.44를 나타내며,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.

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청소년운영위원회(M=1.44), 청소년어울림마당(M=1.42), 청소년참여위원회(M=1.37),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: e-청소년(M=1.32), 청소년특별회의(M=1.30),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(M=1.28),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(M=1.27),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(M=1.20),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(M=1.15)의 순으로 확인됨.
- 2015년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평균은 1.18~1.41의 수준이었으며, 2016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.



* 주: 1) 전혀 모른다(1점), 들어본 적이 있다(2점), 잘 알고 있다(3점)

그림 9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(연도별 추이)